

광주는 잘 있나요? 여행지에서 보내는 편지



광주로 띄우는 그림편지
시즌Ⅲ 8일부터 시작
강운·김상연·김유섭·김해성
박문중·신양호·임근재·임의진
이이남·이인성·허진 등
지역 대표 화가 11명 참여
국내·해외 여행지에서
독자들에게 따뜻한 감성 배달



광주일보 기획 시리즈 '광주로 띄우는 그림편지' 시즌Ⅲ 참여작가들. 왼쪽부터 김유섭·김해성·신양호·김상연·이이남·이인성 작가.

“디지털 시대에서는 사람들이 감성을 잊은 채 편한 대로만 살려고 합니다. 조그만 수고를 들인 손편지는 우리들을 감성적인 세계로 이끌어요. 특히 여행지에서 보내는 편지가 더욱 그렇죠. 편지 문화가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작가들이 먼저 시작합니다.”

지난 3일 한자리에 모인 광주일보 기획 '광주로 띄우는 그림편지'(이하 그림편지) 3기 참여작가들은 오랜만에 편지를 써본 다며 뜻밖의 모습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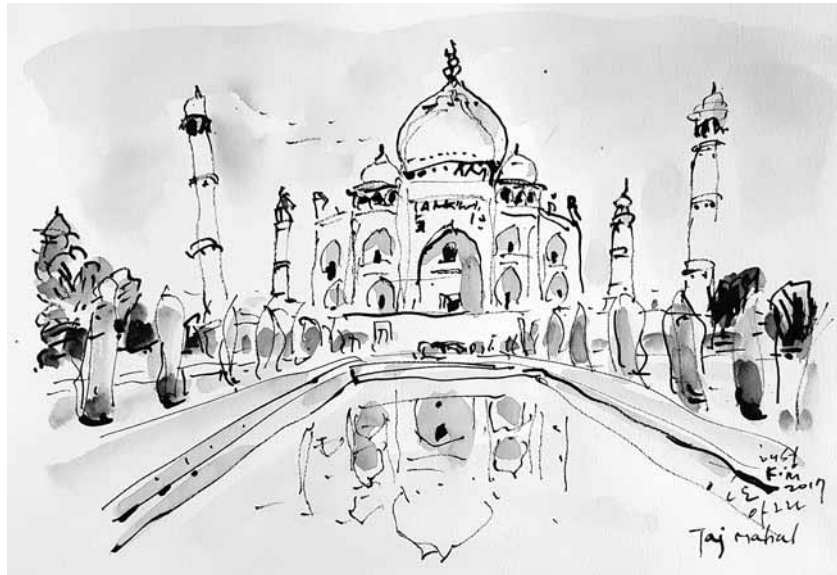
광주일보가 3년 전부터 연재하고 있는 '그림편지'는 화가들의 여행이야기와 깊은 사유를 담고 있어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여행지 풍경을 사진이 아닌 스케치 작품으로 보여준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글로는 설명하기 힘들거나 미처 다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은 그림으로 멋들어지게 풀어내며 독자와 소통하고 있다.

그동안 다양한 지역작가들이 참여해 눈길을 끈다. 작가 섭외는 김해성 작가가 맡았다.

1기 김해성·문명호·문정호·박구환·박종석·오광섭·장현우·정성섭·정성준·조정대·주홍·한희원 작가를 비롯해 2기 강남구·김영태·김해성·류재웅·박수만·박태후·백준선·송필용·이영식·전현숙·정용규·최재영 작가가 편지를 띄웠다.

독자들은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산천을 비롯해 유럽 고성(古城), 아시아 오지, 아



'광주로 띄우는 그림편지' 시즌Ⅱ에 실린 김해성 작가의 인도 타지마할 스케치.

메리카의 잊혀진 문명 등 대륙을 넘나들며 화가들과 동행했다.

이제 3기를 새롭게 시작한다. 오는 8일부터 격주 목요일 지면을 통해 생생한 국내의 모습을 글과 그림으로 선사할 예정이다. 3기는 강운·김상연·김유섭·김해성·박문중·신양호·임근재·임의진·이이남·이인성·허진 등 작가 11명이 참여한다.

8일 첫 게재를 앞두고 작가들은 편지와 여행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김유섭 조선대 미술대학 교수는 “우리



있다”며 “여수 흥국사, 광양 백운산, 강진 무위사 등 독특한 아름다움을 지닌 곳이 많았다”고 말했다.

이이남 작가는 오스트리아 린츠와 헝가리를 여행 예정지로 생각하고 있다.

“광주에 앞서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오는 12월 세계수영선수권대회가 열립니다. 얼마 전 방문했는데 유적 앞에 수영장을 만들고 국회의사당 앞에 다이빙대를 설치하는 등 지역문화유산을 활용한 점이 눈에 띄었습니다. 린츠에서는 주말 관람객들이 미술관에서 떠돌고 노는 모습이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그림편지를 통해 광주에서도 다양한 문화자원을 활용하자는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독일에서 오래 유학한 김유섭 교수는 “독일도 도심 수로를 활용해 수영장을 만들어 인기를 끌고 있다”고 덧붙였다.

참여 작가 중 유일한 30대인 이인성(35) 작가는 일본 가마쿠라를 꼭 소개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 작가는 “30대라면 누구나 일본 만화 ‘슬램덩크’를 알 것이다”며 “만화로 먼저 만난 배경지역의 실제 모습을 독자들에게 소개하면 재미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김해성 작가는 “물질만능시대에서 그림의 가치는 판매비용으로만 판단되고 있다”며 “그림편지는 모두를 즐겁고 행복하게 만드는 미술의 본래 목적을 일깨워준다”고 강조했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젊음의 상징 락·전통타악의 樂·미디어아트와의 결합

타악그룹 얼썬 콘서트

9일~11일 광산문화예회관

젊음의 상징 락, 전통타악이 뿜어내는 즐거운 락(樂), 그리고 미디어아트의 환상적 결합.

한국을 대표하는 타악그룹 얼썬의 타악 콘서트 '락으로'가 광주시민을 찾아온다. 9일~11일(금요일 오후 7시30분, 토·일요일 오후 2:5시)까지 광산문화예회관.

'락으로'는 '내고 달고 맺고 푸는' 우리 전통음악을 기반으로 발달하고 경쾌한 인디밴드가 만나 역동적이고 파워풀한 에너지로 관객과 소통하는 작품이다. 또 미디어아트와의 크로스오버를 통해 불거리를 제공하며 디지털 두, 핸드폰 등 평소 지역에서 접하기 어려운 악기들과 일주만의 창작악기, 전통타악기, 일렉, 베이스 등 다양한 악기의 연주가 펼쳐진다.

공연은 호주 원주민들의 전통 악기인 디저리두와 퍼커션으로 광활한 황야를 질주하는 모습을 표현한 '서막'을 시작으로 서양드럼과 창작 악기로 신명난 사물놀이 가락을 쏟아내는 '질주', 이번 공연에서 처음 선보이는 작품으로 동화적인 핸드폰 소리가 돋보이는 연주곡 '그믐지다', 퓨전 타악의 진수를 만날 수 있는 '구름위의 산책', 태평소의 아름다운 선율과 일렉기타가 어우러진 '아리랑&꿈' 등으로 구성됐다.

김양균씨가 예술감독을, 고창길씨가 연출을 맡았으며 이명운·황인상·김지은·노준영·김대선·박소진·박연희씨 등이 출연한다. 미디어 아트는 박상화씨가 맡았다.

'2017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 선정 작품으로 광주시 광산구와 문화예술위원회가 주최한 바를 통해 불거리를 제공하며 디지털 두, 핸드폰 등 평소 지역에서 접하기 어려운 악기들과 일주만의 창작악기, 전통타악기, 일렉, 베이스 등 다양한 악기의 연주가 펼쳐진다.

공연은 호주 원주민들의 전통 악기인 디저리두와 퍼커션으로 광활한 황야를 질주하는 모습을 표현한 '서막'을 시작으로 서양드럼과 창작 악기로 신명난 사물놀이 가락을 쏟아내는 '질주', 이번 공연에서 처음 선보이는 작품으로 동화적인 핸드폰 소리가 돋보이는 연주곡 '그믐지다', 퓨전 타악의 진수를 만날 수 있는 '구름위의 산책', 태평소의 아름다운 선율과 일렉기타가 어우러진 '아리랑&꿈' 등으로 구성됐다.

문의 062-960-8253, 062-676-3844.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박노식 시인 첫 시집 '고개 숙인 모든 것' 발간

광주 출신 박노식 시인이 첫 시집 '고개 숙인 모든 것'(푸른사상)을 발간했다.

고요 속에 움직이는 존재들의 가치와 의의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시편들은 인간이 지닌 착한 본성과 강인한 생명력을 펼쳐낸다. 시집에는 '빈집', '노랑나비', '무거운 아침', '고요', '그늘' 등 개성적인 작품들이 수록돼 있다.

맹문재 문학평론가는 “박노식 시인의 작품에서 '고요'는 작품의 분위기를 형성하는 토대이자 주제를 심화시키는 제제”라며 “시인의 고요는 평온하고 잠박하면서도 풍진이 선명하고 기운이 느껴지고 그리고 따스하게 돌아온다”고 평한다.

서경과 서정이 조화를 이룬 담백한 시들은 오랫동안 시의 언저리를 돌며 습작을 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시인은 '시인의 말'에서 “밥그릇을 놓칠까 전전긍긍 하면서도 그 속에서 미지도록 그리는 것이 슬

어 있어서 시의 미야처럼 떠돌던 자신을 발견한 것은 그해 겨울, 들날 한가운데 외로이 서서 눈을 맞는 한 그루 미루나무였다. 그리고 시의 문고리를 다시 잡았다”고 말했다.

한편 박 시인은 조선대 국문과를 졸업했으며 동 대학원 국문과를 수료했다. 2015년 '유심'에 '화순장을 다녀와서' 외 4편으로 신인상을 받으며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 현재 화순 오지에서 시 창작에 몰두하고 있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2층 상가매매 (CGV 광주용봉점)

카페(인테리어완료), 병원, 미용실, 학원
당구장, 탁구장, 체육관 등

- 전용 289㎡ (약87평) 분양면적 약150평
- 현재 카페 인테리어(160㎡) 및 공실(129㎡)
- 매매 7억원(근저당 5억원), 실투자 2억원

락 볼링장 매매 (CGV 광주용봉점)

최신인테리어 락 볼링장, 현성업종
직영하실 분 유망사업

- 볼링장 16레인, 시설비품 일체포함
- 매 26억원 (근저당 20억), 실투자 6억원

문의 010-3647-4747

상기물건은 전속중개 물건으로서 급매가입니다

www.솔향기맑은터.com **NAVER** 솔향기맑은터 검색

전남 나주시 남평읍 풍림리 171(풍림죽림길 86)
대표전화 (061)336-0770

참숯가마

24시간 OPEN!!

- ▶ 다량의 원적외선을 방출하는 불베는날 화, 목, 토, 일
- ▶ 불베는 날이 아니어도 화로방에서 원적외선 샤워
- ▶ 사전예약시 컨퍼런스룸, 족구장, 10인승, 20인승 무료이용
- ▶ 멸균작용으로 시 및 바이러스 퇴치에 도움을 주는 목초액 연가공품 1톤 30만원 (양돈, 양계, 한우, 하우스농가대상)
- ▶ 참숯가마 고객님이 식당 이용시 10% 할인

맛의향연

솔향기 맑은터는
총합동 전통음식
그리고 혁신도시에서
10분 거리에
있습니다

참숯구이 돼지갈비 13,000원
(눈,비오는날 9,900원)

- 단체모임을 위한 8인실, 16인실, 32인실, 56인실 구비
- 솔향기정식(예약에 한함), 돼지갈비 전문점
- ▶ 돼지갈비를 드시면 참숯가마 찜질방 20%할인
- ▶ 주말 및 단체모임은 사전예약을 해주시면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각종모임(상견례, 가족모임, 기업체모임)/컨퍼런스룸/참숯가마 찜질방/노래방 & 동전노래방